

대중불교·과학·예술 통섭한 선각자

선학원 주최 만해 스님 70주기 학술세미나

만해 한운은 스님 입적 70주기를 맞아 추모 학술세미나가 6월 16일 서울 정법사에서 열렸다.

선학원이 '한국근대불교사와 만해학'을 주제로 개최한 이날 학술세미나는 불교사상가로서의 만해 스님의 면모를 살펴보는 자리였다.

신규탁 "만해사상 조동종만의 영향 아냐"

신규탁 연세대 교수는 이날 첫 발표인 '만해사상과 선'에서 만해 스님의 <심현담 주해>에 나타난 스님의 선사상을 살피고 김시습의 <심현담요해>와 비교 분석했다.

<심현담>은 당나라 선승(禪僧) 동안상찰(同安常察)이 조동종(曹洞宗)의 가풍과 수행자의 실천 지침 등을 칠언율시 형식으로 노래한 10수의 계송으로 만해 스님은 1865년 <심현담주해>를 펴내었다. 학계에서는 만해 스님의 선사상을 '조동선'과 관련해 논하고 있다.

신 교수는 "만해 스님의 <심현담주해>에는 '이류종생'이나 '편-정' '군-신' 등을 제외하고는 조동종의 흔적이 드러나지 않는다"며 "만해 스님의 선사상을 조동선의 연장선에서 논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논평으로 나선 김호규 동국대 HK연구교수가 <심현담> 10개 항목은 조동우위(조동종의 핵심사상)의 개념과 상당

한 유사성 내지 관련성이 있다"고 지적하자 신 교수는 "선종사에서 '남종선의 5종가풍'을 분류하는 것을 찬성하지 않는다. 종파의 계보는 있지만, 수행가풍에 차이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되물었다.

차차석 "화엄·유마 등의 실천사상 반영"

두 번째 발표에 나선 차차석 동방대학원 대 교수는 "만해사상과 불교학"에서 "만해 스님의 대중불교 사상에는 화엄경과 유마경이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차차석 교수는 만해 스님이 <조선불교유신론>과 '조선불교의 개혁안' 등 다수의 논설에서 대중불교론을 주창했으며, 그 교학적 배경으로 화엄경과 유마경을 들었다.

만해 스님은 1913년 <조선불교유신론>에서 '사회 현실을 여의지 않고 번뇌 중 보리를 얻고 생사 중 열반을 얻는 것인 즉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대중불교의 건설'이라고 설한다.

차 교수는 "만해 스님의 대중불교론은 불성론과 원생보살사상에 의거한 것"이라며 "만해 스님은 이밖에 화엄 성기론, 유마 방편설, <심현담 주해>의 성상윤회설 등을 적절히 활용해 사상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차 교수는 끝으로 "만해 스님이 결국 추구한 것은 대중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불교였다"며 "그 사상은 아직도 현재 진행



신규탁 차차석 한상길 박현수

행"이라고 밝혔다.

한상길 "서양철학의 자유의지 등 도입"

이어 '근대 동아시아 사조와 만해의 개혁사상'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한상길 동국대 선임연구원은 양계초, 이몽인, 태허 스님, 세노오 기로, 다르마 팔라 등 동시대 다른 불교개혁과들과 비교하며 "만해 스님이 펼친 불교개혁은 당시 아시아의 큰 흐름 중 하나였다"고 평가했다.

한 연구원은 "만해 스님은 근대 자유주의 사상에 심취, 칸트의 자유의지와 같이 인간 본성을 자유로운 것으로 보았다"며 "여러 서구철학과 사상도 수용해 당시 조선사회의 현실과 불교개혁을 위한 사상 정립에 활용했다"고 말했다.

박현수 "문학과 삶 연관고리 연구"

끝으로 박현수 경북대 교수는 "만해문학의 문학사적 가치"를 통해 "만해 스님은 과학(진), 종교(선), 예술(미)를 하나로 통합해

사유한 전인적 인간이었다"고 평가하며 "만해의 문학은 단순히 그 문학만 볼 것이 아니라 문학과 삶의 연관고리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교수는 "문학사적 가치로 보면 '심오한 형이상학의 형상화' '시적 형식의 문학적 완성' '다양한 화자의 발견과 열란기'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은 "만해 스님은 선학원 설립조사로 수행정진에 힘쓴 선사, 민족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삶의 희망을 북돋아준 시인이자 소설가, 민족의 독립에 힘쓴 독립운동가, 학교를 설립하고자 애쓴 교육자, 문학 동인지와 잡지 발간에 노력한 언론인 등 다양한 분야의 선각자였다"며 "만해 스님 관련 자료의 체계적 수집과 학술서적의 발행을 통해 만해 스님의 삶과 사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i@hyunbul.com

도심에서 화엄경 무료강좌 열린다

화엄학연구소·미벗아카데미 6월 23일부터 공동 개최

화엄학연구소(소장 신규탁, 연세대 교수)와 미벗아카데미(대표 이학중)는 6월 23일부터 조계사 인근 전법회관 대강의실에서 '화엄경 대강좌'를 개최한다.

매주 월요일 오후 7시부터 90분간 열리는 이번 강좌에서는 연세대 철학과 교수로 봉선사 회주 월운 스님에게 사사받은 신규탁 교수가 강연한다.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강의실 문제로 선착순 30명으로 제한된다. 무단 2

회 이상 결석 땀 수강자적이 박탈되고, 예비수강자에게 수강권이 이양된다. 예비수강자는 강의를 들을 수는 있으나, 좌석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수강신청은 이메일(urubella@naver.com)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수강 신청 시 반드시 신청자 이름과 모바일 전화 번호, 이메일주소를 명기해야 한다.

노덕현 기자

달라이라마 통역사에게 배우는 티베트어

티벳장경연구소 7월 7일부터 무료강좌 개최

동국대 경주캠퍼스 티벳장경연구소(소장 진옥)는 동국대 경주캠퍼스 백주년기념관 408호에서 7월 7일부터 8월 22일까지 현대 티베트어 강좌를 실시한다. 강좌에서는 현재 제14대 달라이라마 통역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은정 티벳장경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매주 월·수·금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간씩 기초회화와 문법을 강의

한다. 자세한 사항은 티벳장경연구소 홈페이지(www.koreatibet.kr)에서 볼 수 있으며, 신청은 연구소로 하면 된다.

한편, 2009년에 설립된 티벳장경연구소는 티베트대장경 역경사업을 위한 티베트어 한글표기안 발간 및 특강, 학술대회, 번역서 출간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한국불교학회 '불교전과 경로와 수행문화'

한국불교학회(회장 권란준)는 7월 4~5일 동국대 경주캠퍼스 원효관 글로벌에이 스툴에서 '불교전과 경로와 수행문화'를 주제로 하계 워크숍을 개최한다.

4일 행사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정준영 서울불교대학원대 교수의 '남방불교 수행문화 형성', 한지연 금강대 HK교수의

'북방불교 수행문화 형성'이 발표되며 자유토론이 이어진다. 5일에는 경주 남산 불적당사도 진행된다.

권란준 한국불교학회 회장은 "불교가 전파된 경로를 따라 각각의 수행문화 전통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살펴보는 기회"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불교사상으로 한국형 경영 모델 만든다

'인적자원관리의 불교적 리모델링', 프로젝트 콜로키움 개최

한국형 경영관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가운데, 불교사상을 바탕으로 한 경영기법에 대한 학술적 담론의 장이 마련된다.

'인적자원관리의 불교적 리모델링'(책임연구원 박경준, 동국대 교수)은 한국연구재단 공동연구사업 일환으로 6월 27일 오전 10시 동국대 학술관 102호에서 '화쟁의 원리와 구조, 그리고 사회적 적용'이란 주제로 콜로키움을 개최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2013년 9월 1일 선정돼 2015년 8월 말까지 진행된다.

그동안 불교는 무소유를 강조하는 경제와는 동떨어진 종교라고 인식돼 왔다. 하지만 불교는 2600여 년 전 인도에서 유일하게 이자 수입을 인정한 종교였으며, 오늘날 글로벌 기업에 비유할 수 있는 대상(除商)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기반으로 성장한 종교다. 또 초기 아함경 곳곳에는 상업활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돼 있다.

이번 콜로키움에서 화쟁사상을 키워드로 다양한 불교사상 속의 한국형 경영모델을 모색한다. 그동안 분석과 검증 없이 했던 경영 논리에서 벗어나 한국 특성에 맞는 인적자원관리 모델을 제안하는 것이 연구 과제다.

이번 콜로키움에서는 최연식 동국대 사학과 교수, 이도흠 한양대 국문학과 교수, 석길암 금강대 HK교수가 '화쟁에 대한 원효의 논리적 구조' 화쟁은 사상인가 논법인가 '화쟁의 현대사회문제에 대한 적용 가능성' 화쟁의 구체적 논법 또는 논리전개방식'의 4가지 사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힌다.

이어 김승용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이재수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이종진 한국산업기술대 산업경영학부 대우교수가 경영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한국형 인사관리 방안을 제시한다.(02)2260-3129

노덕현 기자

일본어로 만나는 '한국불교 100년'

23일 도서 출판기념회... 이치노헤 스님 전폭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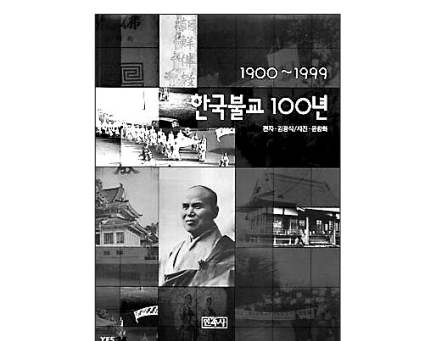
2000년 민족사가 발행한 사진집 <한국불교 100년>이 일본어판으로 출판된다. 이를 기념하기 위한 출판기념회도 열릴 예정이다.

사진과 해설이 곁들인 <한국불교 100년>는 1900~1999년까지 한국불교와 관련된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사건을 망라했으며 근대 한국불교 1세기를 훌륭하게 조망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록된 자료는 불교계에 있었던 중요 사건, 회귀사건, 기념사건, 신문, 잡지, 인물, 책, 성명서, 문건, 중요사건, 기사 등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모두 모아 총 1105컷을 수록했다.

이 책은 일본 고세이사(皓星社)에서 일본어판으로 출판되는 데는 조동종 운소지(雲祥寺) 주지이며, 동아시아불교운동사 연구회를 이끌고 있는 이치노헤 쇼코 스님의 역할이 컸다. 스님이 모든 출판 경비도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치노헤 스님은 "책을 출판한 목적은



이 책이 일본 제국주의의 한국불교 수탈 사진과 자료들이 많이 수록돼 있다"면서 "일본인들에게 광복 이후 한국불교의 발전모습을 알리고 싶었다"고 밝혔다.

출판기념회는 6월 23일 오후 5시 도쿄 긴자 라이온스 호텔에서 열리며, 한국 측에서는 군산 동국사 주지 종걸 스님, 윤창화 민족사 대표, 유정길 예코봇다 공동대표 등이, 일본 측에서는 쇼코 스님, 하쿠신론 참의원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동국대 불문연, '불교원전연구' 제16호 발간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김종욱)은 최근 <불교원전연구> 제16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최종남 중앙승가대 교수의 '산스크리트본 대승장엄경론 보리품 한 글역' △이자랑 동국대 HK연구교수의 '빨리움 비구경분별 바라이품' △양승규

동국대 한의학연구소 초빙교수의 '보만론' △권오민 경성대 교수의 '아비달마승정리론 변역기품 중 요의경에 관한 중현과 상차 수리라타와 세친의 대론' △원영상 원광대 교수의 '팔종강요 해석' 등이 실렸다.

노덕현 기자

구례 사성암 일원 '명승' 지정 예고

전남 구례 사성암 일원이 '명승'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6월 15일 구례 오산 사성암 일원을 명승으로 지정 예고했다.

사성암은 백제 성왕 22년에 연기 조사가 창건한 천년고찰로 '오산암'으로 불리다

가 4명의 고승(의상 대사, 원효 대사, 도선 국사, 진각 국사)이 수도해 '사성암'으로 바뀌어 불린 것으로 알려졌다. 자라 모양의 '오산'은 해발 531m의 낮은 산으로 중생대 백악기에 분출한 안산암과 유문암질 화산암이 주를 이루고 있다.

노덕현 기자

생전 예수재 기도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생전 예수재는 살아 있을 때 사후(죽은 뒤)를 위하여 공덕을 쌓아서 지옥고를 받지 않고, 극락왕생하도록 법의 공덕을 저축하는 의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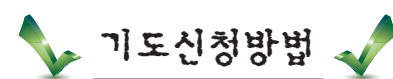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전예수재가 사후의 극락도 보장하지만, 살아있을 때, 전생의 빚을 갚는 의식을 겸한 재로써, 이 재를 지내면 그시점부터, 단계적으로 빚을 갚아 나가게 되므로 살아있는 동안에 빚을 갚은 만큼,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이 기도로써 업장소멸이 거의다,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생의 빚을, 단계적으로 갚아 나갈 수 있는 생전예수재 기도 방법과 방편을 마련하였습니다. (사진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성스러운 방편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이 방법으로 이제 생전예수재 기도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쉽고, 간편하게, 또한 저렴한 비용으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자들에게 드릴 생전예수재 기도의 중요성 책자가 준비되어 있으므로 전화 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기도신청방법

생전예수재 기도 책자를 받으셔서 읽어보시고, 본회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기도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생전예수재 기도의 성취효과는 매우 크며,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써넣고, 기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불자들에게서 다른 좋은 기도도 많이 있지만, 이번에 한번 해 보실 만한 기도로써, 생전예수재 기도를 권해드립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괴로우셨다면 이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